

요양병원 스프링클러로 화재위험 낮췄다

전주시보건소, 스프링클러 설치율 지난 1월 60%에서 94%로 향상 35개소 중 33개소 설치 완료... 2개소는 공사 중으로 이달 중 완공 예정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전주지역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게 됐다.

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병호)는 화재 관련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6월 30일)를 앞두고 전주지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35개 요양병원 모두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거나,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병원은 총 35개소(3월 이후 신규2, 재개1 포함)으로, 이 가운데 33개소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으며, 나머지 2개소도 7월 완료를 목표로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가 지난 1월 점검 당시 32개 요양병원 중 13개소가 미설치 혹은 공사중이어서 설치율이 60%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설치를 독려한 결과 94%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2곳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완료되는 오는 7월에는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전주지역 요양병원 화재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는 지난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5년 7월 1일부터 신규로 설치된 모든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속보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됐다. 또, 기존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3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설치하도록 했으며, 바닥 면적 60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인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를, 600㎡ 이하인 요양병원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전주시보건소는 유예기간 2년 전인 2016년부터 전주지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꾸준히 확인하고 설치를 독려해 왔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화재발생시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의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요양병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시설 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올 들어 지난 1월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고 등 전국적으로 대형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았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재향군인회가 6.25참전자 전주지회 회원들을 초청해 6.25전쟁기념 및 호국영웅위로연 행사를 가졌다

‘나라 지킨 그분들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전주시재향군인회, 6.25전쟁기념·호국영웅위로연

전주시재향군인회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6.25 참전용사들을 위로했다.

시 재향군인회는 지난 29일 중화산동 소재 시에나와인부페에서 6.25참전자 전주지회 회원들을 초청, 제68회 6.25전쟁기념 및 호국영웅위로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현덕 시의원, 김인기 시 복지환경과장과 6.25참전 호국영웅 100명, 전주시재향군인회 남내회원 30명 등 150명이 참석, 성대하게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개회선언과 국

민의례, 시 재향군인회장의 기념사 및 내빈축사, 부영이예술단의 가야금 병창과 난타공연, 가요공연, 민요공연, 악기연주 등 위문공연도 펼쳐져 나라사랑과 호국보훈 정신을 고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창수 전주시재향군인회장은 "나라를 지킨 6.25참전 호국영웅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리에 계신 참전용사들께서 보다 존경받고 예우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재향군인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완산구 열린어린이집 18개소 정기점검 실시

완산구청은 6월 한달간 구내 '열린어린이집' 1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9일 완산구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개방성, 부모의 참여성, 보육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다양성 등 '열린어린이집'의 모든 선정기준에 대해 서류 및 전산을 통해 확인했고, 그 중 사전 수요조사 없이 부모교육 또는 부모참여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등을 진행한 1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완산구내 전체 어린이집 330개소 중 5.4%인 18개소가 지자체형 및 수형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

되어 있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시 가점, 국공립 위탁 심사시 지도점검 제외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보건복지부에 추천되어 어린이집 지정, 포상 등의 기회도 제공받는다.

완산구 나경옥 가정축소년과장은 "시설을 개방하고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운영되는 열린어린이집을 적극 발굴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여름이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29일 오후 어느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임산부 교육’ 진행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비 부모교육 실시 임신과 출산 앞둔 이주여성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29일 다문화가족 2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모유수유 방법'을 주제로 한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임신과 출산을 앞둔 결혼이주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3일(신생아 관리법)과 8월 10일(이유식 만들기) 등 총 3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 여성들에게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 △이유식의 기본적인 지식 △식습

관 형성을 위한 기본지도 방법 등 초보 엄마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을 제공, 건강한 출산과 영아기 준비를 도울것 이라고 29일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마연 씨(중국 출신)는 "첫 출산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신생아 케어법과 모유 수유법등 교육을 통해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지훈 센터장은 "엄마뿐 아니라 태어날 아이에게 맞는 신생아 케어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직장 내 서로 존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동행

전주시, 직원 대상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전주시는 지난 29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의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과 각종 폭력예방 방지에 대한 정의를 부각시키고,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개선을 근본적으로 예방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 박미애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는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피해자에 대한 고

충상담 및 구제절차 △각종 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사례를 들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극단 '문화프로덕션 봄'의 폭력예방 연극도 진행되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폭력 예방을 위해 그간 폭력추방 하나로 문화행사, 전주 단오제기간 폭력예방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서로 존중하는 아름답고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동행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고준희양 친부·동거녀 각각 20년 10년형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과 관련, 법원이 준희양 친부(37)와 동거녀 이모(36)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암매장을 도운 동거녀의 어머니 김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고씨와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폭행해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어린 딸을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따뜻한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보지 못한 채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들의 범행

은 반사회적·반인륜적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고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 공분을 샀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때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준희양의 등과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아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6일 오전 8시40분~50여분간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에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신고를 해 3000여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으며,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